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2024

written by

President's
List

‘성균인들의 삶에 +가 되는’

#도전의 순간들

#실패와 부딪침

#전환의 기회로



성균관대학교 | 학생 성공 센터
SUNGKYUNKWAN UNIVERSITY | Student Success Center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목차 CONTENTS

- 센터장 추천사 5

- 1. 김나연 (러시아어문학과 19학번 | PL 제3기)
러시아어문학과 전공자의 런던 근로자로 살아남기 7

- 2. 김수민 (인공지능융합전공 20학번 | PL 제4기)
운동선수에서 AI 전공자로 11

- 3. 윤지원 (아동·청소년학과 21학번 | PL 제4기)
이번 학기 네 테마는 뭐야? 17

- 4. 이호준 (수학과 19학번 | PL 제4기)
반년간의 연구를 즈려뵈며 21

- 5. 차서연 (유학·동양학과 19학번 | PL 제3기)
Dear _____, 27

- 6. 고남옥 (경영학과 19학번 | PL 제4기)
두 번째 스무 살, 마흔에 다시 학생으로 31

- 7. 허정원 (컬처엔테크놀로지융합전공 19학번 | PL 제3기 'Fujipacific Music Korea' Creative A&R 재직 중)
안 해본 거 빼고 다 해본 프로 열정러가 별안간 음악에 미치기까지 35

- 8. 강 훈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18학번 | PL 제3기 | SK On 배터리 재직 중)
수능만 한 해설지? 39

- 9. 김영민 (전자전기공학부 16학번 | PL 제2기 | 삼성KPMG 디지털 본부 재직 중)
나는 어떤 실패를 해왔는가? 43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PLus Book 세 번째 책을 출간하며



어느덧 <PLus Book> 세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4 PLus Book>에는 우리대학의 학생성공 롤모델인 President's List(PL) 학생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도전과 실패, 전환의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도전의 순간들, 실패와 부딪침, 전환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2024 PLus Book>은 PL로 선발된 재학생,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학생성공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2023학년도에 PL 자치활동을 위한 운영진으로 활약했던 6인의 학우(김나연, 김수민, 윤지원, 이호준, 차서연, 고남욱)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도전과 실패의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관점이 전환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졸업생들은 사회 초년생들로서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진로 탐색과 도전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는 각자의 일터에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는 3인의 학우(허정원, 강훈, 김영민)들입니다. 이들은 모교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뜻 <PLus Book> 제작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3인의 졸업생들은 현재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도전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갖게 된 생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번 <PLus Book>을 통하여 더 많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에 도전을 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담대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균인이 되어 각자가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응원합니다.

2024년 3월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장 이준상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저자 프로필 | 김나연



학 력 러시아어문학과 19학번 | PL 제3기

이메일 rlask0104@naver.com

약 력 2020 - 한식 숯폼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어, 러시아어권 누적 구독자 5만 명 이상. 2022 기준)

2021 -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 전액장학생 선정
- 외교부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 3기 (F&B 사업부문 팀장)
- 외교부 한-러 사업아이디어공모전 유럽국장상 수상 (한국식 티푸드 브랜드 '담소' 기획)

2022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공공외교학회 공동주관 논문 공모전 학부생 단독 입상
(주제 : "문화공공외교의 개척 모델로서의 K-Food : 그 지속가능성과 실용성을 위한 모델 창조를 중심으로". 단일 저자)

2023 -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주제 : "문학과 회화의 음식코드를 통해 바라본 모스크바적 식문화의 서구화 양상")
- 유라시아차세대리더스협회(EFLA) 초청 특강 연사
- KRBC 창립 12주년 기념 '한러 청년 토크 콘서트' 패널 초청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인턴 영국 파견
- 2023 대한민국인재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러시아어문학과 전공자의 런던 근로자로 살아남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어문학과 식품생명공학을 전공하면서 세계인의 식탁에 맛있는 즐거움을 전하기 위한 여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K-Food’를 소재로 대학 생활 전반의 경험을 도전, 갈등, 전환을 주제로 제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2. ‘한식’을 사업 아이템으로, 처음 두드린 러시아 시장

한국 대중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높다는 점을 이용해 직접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려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저의 러시아어문학과 전공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극심했을 때 한식 레시피, 식문화 소개와 관련된 영상을 러시아어로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구독자가 모이게 되었고, SNS 소통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소비자의 특성과 문화를 파악하는 훈련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외교부에서 주최한 ‘한러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차를 네 번째로 많이 마신다는 점을 활용해 ‘한국식 티푸드’ 상품을 기획했고 외교부 유럽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후 실제로 저희 팀은 모스크바를 첫 타깃으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3. 갈등을 전환의 기회로, 러시아와 영국의 공통분모 찾기

투자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모든 계획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제 첫 사업 아이템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은 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중, K-Food 제품들을 해외 시장에 마케팅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해외인턴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기회야!”라고 생각하고 저는 희망 파견 국가를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영국 런던’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라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했던 경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러시아에 대한 경험을 최종면접에서 연계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전세계 차소비량 4위인 점을 이용해 ‘한국식 티푸드’를 기획한 경험

⇒

영국은 전세계 차소비량 1위임을 강조, 유럽 문화 이해와 창의적인 기획 능력 어필

유라시아권 사람들과 SNS 콘텐츠를 통해 소통한 경험

⇒

서유럽권 영국 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마케팅에 대한 역량 강조

러시아에서 영국으로의 전환

⇒

유라시아권에 대한 경험을, 유럽 전체로 확장하여 ‘전세계’에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 어필

4. 런던에서 한식을 외치다!

그렇게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저는 런던으로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항공권, 주거비용을 전액 지원받고 월급도 받는 런던너(Londoner)의 삶을 즐겼습니다! 공기업 특성상 국가기관이나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고 현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서 K-Food 해외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사무실의 주요 성과를 소개해 드리자면, 주영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국경일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전세계 외교관, 정치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주와 농산물을 영어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었던 마케팅 프로젝트는 바로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LEAF 2023)’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영화제의 주요 스폰서 및 파트너사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런던너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식 시식 이벤트를 진행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런던의 가장 변화가 거리인 'Soho' 한복판에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한식 홍보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웅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 공인 김치 명인님을 초청해 런던 한복판에서 김장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영국 푸드블로거 초청 VIP 한식 시식회, 런던 관광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현지 행사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 모두 제가 관심 있던 주제는 늘 일맥상통했습니다. '서구권 식탁에 한식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맛과 경험을 선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목적이 뚜렷했기에 위기가 와도 저만의 돌파구를 찾아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훨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전쟁이라는 갈등 상황이 없었다면 러시아 시장에만 집중했을 테고, 영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볼 수 없었겠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오히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5. 마치며

오늘 소개해 드린 제 경험들은 매 순간과 그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겹기도 했고 막연한 안개 속을 헤치고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PPlus Book을 작성하면서 과거와 지금의 저를 다시 돌이켜보니, 그땐 분명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저에게 '마음의 근육'이 되어 조금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위기가 문득 찾아올 때면 '내가 더 단단해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레벨업을 위한 일종의 퀘스트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도 계속 고여 있으면 마음이 많이 굵고 아프더라고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라 그럴 때 다양한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제 머릿속을 환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과몰입하지 않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나긴 내 인생의 사소한 일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자 프로필 | 김수민



학 력

인공지능융합전공 20학번 | PL 제4기

이메일

seankim1317@gmail.com

약 력

- 2021**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홍보대사 '알리미' 3기 기장
 - 인공지능을 활용한 앱/웹 개발 대회 '최우수상'
 - 우수학부연구생(URP) 국내 논문 투고
 - AI-Math 융합 연구실 학부연구생
- 2022**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제4대 학생회장
 - 성균관대학교 제54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앱/웹 개발 대회 '우수상'
 - 우수학부연구생(URP) 연구 활동
 - 성균관대학교 President's List 4기 선발
- 2023**
- 대통령과학장학생 21기 선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단 학생연구원 인턴
 - 성균관대학교 Co-Deep Learning 대회 '최우수상'
 - 삼성전자 서비스 디자인 및 AI 해커톤 '우수상'
 - KOPIS 빅데이터분석 공모전 '진흥상'
 - 성균관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및 AI 해커톤 '총장상'
 - Uni-DTHON 데이터톤 '특별상'
 - SCAICO 수도권 인공지능 연합 경진대회 '우수상'
 - 우수학부연구생(URP) 연구 활동



운동선수에서 AI 전공자로

1. 운동선수였던 내가 인공지능을 전공한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야구를 좋아해 초등학교 때 주말마다 부모님과 야구장을 다니며 야구라는 매력에 점점 더 빠지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야구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렇게 프로야구선수를 꿈꾸었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려 리틀야구단에 들어가 본격적인 학생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내 인생에 첫 번째 큰 도전이 시작됐다.

학생선수로서 살아가다 고등학교 야구부로 진학할 즈음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선수는 프로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며 모든 일정을 훈련에 최우선으로 두며 학업은 신경 쓰지 못한다. 프로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학생선수도 아직 신분은 학생이고 내가 미래에 평생 야구만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병행하는 친구 또는 선후배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부모님, 선생님, 감독님, 코치님 등 주변에 있는 여러 명의 어른들에게 고민을 말씀드리며 조언을 구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주변 모든 어른들이 나의 생각을 지지해 주셨고,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다. 내 인생에 큰 도전을 다시 하며 너무 감사했기에 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수로서는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과 학생으로서는 내신 1점대 성적을 받았다. 나는 대학 진학을 희망했고 감사하게도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해 20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프로선수가 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고, 입학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학부생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찾아와 고민에 빠지게 했다. 나는 야구를 좋아했기에 스포츠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을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지 스포츠라는 학문에는 큰 관심을 없다는 것을 새내기 생활을 보내며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관심 있는 학문은 어디일까 고민을 하다가 성균관대 새내기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교양 과목인 '컴퓨팅사고와 SW코딩'과 '문제해결과 알고리즘'에서의 주요 개념들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나를 보았다.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매력 있게 보였고, 코딩을 생각하면 어렸을 적 야구를 생각했을 때 느꼈던 형용할 수 없었던 떨림이 다시 찾아왔다. 이후 나는 인공지능융합전공으로 전공진입(전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해 인공지능 전공자가 되었다. 내 인생에 다시 큰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2. 인공지능 전공자로서의 첫걸음

인공지능 전공자가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파이썬과 C언어, 그리고 기초적인 알고리즘만 알았던 나는 인공지능을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무작정 인공지능융합전공 학회인 [COCO:]에 들어갔다. 학회에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인공지능 기초 스터디와 공모전에 참여했다. 흔히 '맨땅에 헤딩'이라고 말하는 방법을 택했다. 고생스러웠지만 인공지능을 빠르게 공부하기에는 효과적이었다. 특히 선배들이 하고 있는 우수학부연구생(URP)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해당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내 학회에 논문도 투고했다. 프로젝트와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인공지능은 수학을 코드로 풀이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스스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수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해 수학 지식을 쌓고자 했다. 열심히 노력했고 대략 100명 정도 되는 수강생 중에 전체 등수 1등을 하며 감사하게도 교수님으로부터 연구실 참여 제안을 받았다. 시와 수학을 융합하는 연구실이었기에 고민 없이 학부연구생 생활을 2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2학년 생활을 전공 수업과 인공지능 학회, 우수학부연구생(URP), 그리고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웠을 무렵 애플리케이션과 웹 페이지 개발에도 관심이 생겼다. 소프트웨어학과 복수전공을 하면서 컴퓨터공학에 대한 기초 과목을 수강하고 바로 학점교류 제도를 통해 '카이스트 CS496 몰입캠프'를 수료했다. 몰입캠프는 성균관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컴퓨터 관련 전공생들이 모여 한 달 동안 총 4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다른 2~3명의 팀원들과 함께 앱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코딩 개발 실력이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발할 때 소규모 그룹에서 팀워크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던 점이 좋았다. 효율적인 팀워크를 하기 위한 나만의 결론으로는,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팀의 목표를 소통을 통해 분명히 정해두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3. 연구 인턴과 공모전 수상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 관련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이후로는 연구 인턴과 여러 공모전에 도전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자 노력했다. 2학년, 3학년, 4학년 모두 공교롭게도 우수학부연구생(URP) 활동을 했다. 또한 교내 장기현장실습(Co-op) 제도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단에서 학생연구원으로서 컴퓨터 비전 분야 연구에 참여했다. 공모전은 주로 인공지능이 주제인 경진대회에 참여했으며 감사하게도 10개 이상의 상장을 받았다. 우수학부연구생(URP), 장기현장실습, 여러 공모전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간략하게 적고자 한다.

우수학부연구생(URP)을 3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님이 지원해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인공지능 관련 전공과목인 머신러닝, 강화학습, 자연어처리, 컴퓨터비전 등을 수강하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도 관심에 그치지 않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의 예시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우며 어떻게 실생활에 머신러닝이 도입될 수 있을까 궁금했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 의료 분야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우수학부연구생(URP)를 통해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당뇨병을 초기에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우수한 정확도로 개발했다. 이후 논문을 작성해 한국정보통신학회에 투고한 경험까지 얻게 되었다. 이처럼 우수학부연구생(URP) 활동 덕분에 전공과목에서 얻은 지식에서 나아가 응용하는 심화학습까지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장기현장실습(Co-op)은 기업체에서 인턴 생활과 동시에 월급과 학점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당시 나는 학교 밖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고 연구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단에서 학생연구원을 모집한다는 교내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다. 합격한 곳은 운이 좋게도 컴퓨터 비전 분야의 연구실이었다. 당시 나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AI 컴퓨터 비전 기술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는 삶이 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장기현장실습을 마친 이후에 나는 컴퓨터 비전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고 내 미래를 계획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학생연구원으로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으며 Co-op 제도가 아니었으면 연구 생활이 나와 잘 맞는지 아직까지 고민했을 텐데, Co-op 제도는 그 고민을 없애주었다.

우리 학교는 정말 다양한 공모전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중 인공지능 공모전이 여러 도메인과 융합되어 다양하게 개설된다. 흔히 공모전을 나가기 전에 내가 충분한 실력이 되는가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조건 참여하라는 것이다. 공모전을 참여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앞으로 공부해야 하는 방향성을 그 어느 방법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팀워크를 많이 경험해 보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공모전을 찾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는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교내 홈페이지와 단과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엄청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4. 학생자치에 대한 열정

인공지능융합전공 학생으로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 인턴과 공모전 수상에 초점을 맞추어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지만 동시에 학생자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새내기 때는 아쉽게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활동이 축소되었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2학년이 되었을 때는 학교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에 글로벌융합학부 홍보대사 알리미에 들어갔다.

나는 알리미로서 학부를 고등학생과 새내기에게 홍보하며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글로벌융합학부는 다른 학부에 비해 비교적 신생 학부이다. 학부의 정해진 틀이 없었으며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학부의 문화가 될 수 있었다. 더 좋은 문화를 구축하고 싶어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장에 출마했고 당선되었다.



우리 학생회는 '교육/문화/미디어/복지/소통/자치'의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1년 동안 총 80개 사업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행되거나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었기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 기획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대동제 때 글로벌융합학부 주점인데, 학생들이 축제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꿈꾸었던 장면이라 그렇다. 당시 학생회 집행위원은 22명으로 규모가 컸던 팀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리더로서 아쉬웠던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느낀다. 정말 다행히도 함께해 주었던 친구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해주었기에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융합학부 알리미와 학생회장 그리고 중앙운영위원 등 리더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새 리더 역할에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어졌고 아직도 팀플을 한다면 리더를 자원해서 하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리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리더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제주도 210km 국토대장정과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탐방, 유생 문화 고하노라에 참여했다. 학교에서 모두 금전적인 부분까지 지원해 주며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개발자 또는 연구자로서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를 소통과 도전정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 덕분에 여러 도전을 경험해 보며 도전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5. 앞으로의 생각

앞으로 나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AI 컴퓨터 비전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다. 단기적으로는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 진학을 생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세계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도전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싶다. 도전이 흥미롭고 도전하는 과정이 매력적이다. 내 좌우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이다. 어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 순간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도전을 즐기며 다음 나에게 찾아올 장면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듯싶다.

6.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는 한강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짧게는 6km 길게는 12km를 산책하는 나만의 코스가 있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과거 운동선수로서 살아갈 때는 매일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20살 대학교에 와서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로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한강이라는 좋은 뷰를 가진 장소에서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운동을 하면 체력적으로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야 다음 도전을 할 힘이 생기기에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저자 프로필 | 윤지원



학 력 아동·청소년학과 21학번 | PL 제4기

이메일 dbswldnjs0114@naver.com

약 력

| 수상 |

- 2022 - 학부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
- 성균관대학교 올해의 총장상_ President's list
- 학생성공-창의장학금 수상
- SSG닷컴 브랜드마케팅 공모전 우수상
- 삼성전자 서비스 디자인 해커톤 공모전_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_ 전국 2등(진흥상)
- 2023 -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_ 우수상
-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영상 부분_ 최우수상

| 활동 |

- 2022.3~2023.6 18개월간 이랜드 전략기획본부(ESI)에서 이랜드 산하 브랜드의 문제상황을 의뢰받아 6개의 프로젝트 진행
- 2023 신한카드 16주년 행사_20대 대표 초청



“이번 학기 네 테마는 뭐야?”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나날이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내면에 존재하는 위대한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더 새로운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윤지원입니다. 2022 President’s list 4기로 선발된 후, 두 번째로 수기집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비교적 빠른 나이인 21살에 President’s list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특출난 게 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매일 더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간절한 모습에 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면 비슷하고 또 다르면 다른, 제 대학교 3년간의 스토리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2. 실패와 부딪침

아직도 첫 대학 입학 시에 얻었던 충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에서의 공부는 학창 시절 해왔던 공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막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포토샵, 코딩, 엑셀, 데이터 분석 등 교내·외 활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많았지만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평생 정해진 공부와 과제만 하면서 살았던 저에게는 대학교의 삶이 큰 문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문턱을 넘기 위해 처음 시도했던 것은, 방학 동안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동안 정책, 글, 캐릭터, 공익광고 공모전 등 15개의 공모전에 혼자 참여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포토샵을 배우려고 어도비를 깔아서 유튜브를 보며 따라 하며 캐릭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정책 공모전을 나가기 위해 도서관에서 이해하기 힘든 책들을 보며 꼬적꼬적 정책을 만들어 보고, 소설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 며칠간 밤을 새우며 유치한 소설을 썼습니다.

3달 동안 이러한 삶을 살며, 스스로가 대견해 보였고 성공이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일 것이라는 생각을 원동력으로 삼았지만, 이는 심히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나갔던 15개의 공모전 대부분에서 떨어지며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누구보다 더 길고 알차고 열정으로 불탔던 제 첫 대학교 여름방학은 이렇게 지나갔고, 아무리 스스로 큰 열정과 노력을 다했다 하더라도, 뚜렷한 목표와 전문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전환의 기회로

이러한 실패의 쓴맛을 통해 막연한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을 많이 알아봐 주고, 또 인정해 주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이는 좋은 목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시선이 항상 남을 향해 있고, 이러다 보면 매번 스스로를 재촉하게 되고 팔목할 만한 '성과'만 내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느낀 성장의 기쁨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롭게 세운 목표는 한 학기마다 뚜렷한 한 가지의 목표를 세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분석, 경영전략, 이과 분야 체험, 엑셀/엑세스' 등 매 학기 한 가지의 테마를 정했습니다. '데이터분석의 기초를 익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과 공모전을 취득해 보자'라는 한 학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D(SQL 개발자),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취득했습니다.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큰 좌절과 슬픔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험을 몇 번 보든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남는 것은 이를 뚫는지의 여부이고 그렇기에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몇 번을 보든 난 언젠가 꼭 딸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하며 계속 도전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현업 경험도 해보고자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KOPIS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도 출마하였고, 2달간의 몰입 끝에 '시점별 최적 할인을 제안을 통해 공연 실적 극대화를 돕는 AI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공모전 2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마구잡이로 도전해서 실패했었던 저였지만, '뚜렷한 목표와 전문성'에 맞게 노력한 결과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분석'이라는 테마 이외에도 경영전략, 이과 분야 체험 등 매 학기 한 가지 테마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더 바라보게 되고 감정과 생각이 풍부해진다고 느꼈습니다. 매 학기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더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지고 생각의 폭이 유연해졌습니다. 또 단단히 쌓아 올린 경험과 도전을 자양분 삼아, 더 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확신하여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위해 매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많은 대화를 하며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과정은 그 어떤 것보다 성취감이 있고, 내일이 더 기대될 만큼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취감과 재미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작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요?



4.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 때 썼었던 시를 함께 실어보고자 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시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듯,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이 시가 위로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부끄럽지만, 이 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둡고 불안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기에, 지금 상황이 어두운 만큼, 곧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니까요.

철광석이 쇠가 되기까지

새들은 좌우에 달린 두 날개만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온몸을 다해 힘겹게 난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장소에 도착한다. 격렬함을 극복한 끝에 꿈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온몸으로 살고 죽기 전까지 온몸으로 발버둥 친다.

철광석 덩어리처럼 아직 미완성인 상태인 자신을 계속 달구고 단련하면서 역경을 버틴다. 자기 자신을 계속 달구는 그 시기는 너무 힘겹다. 생살이 찢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 없는 분노로 항상 뜨겁다. 언제까지 달궈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고 가끔씩 자신의 현 상태에 의문이 들고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 또한 자신 못지않게 바쁘고 지쳐 보인다.

가끔씩 다 달궈져서 찬란한 모습으로 몇 명의 친구들이 세상으로 나간다. 비교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종종 느끼는 열등감을 어찌할 수는 없다. 어느새 자기 자신도 불그스름한 불꽃을 조금씩 튀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불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느끼며 위안을 얻기 시작한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자신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마침내 조그마한 철광석 덩어리에서 '쇠'로 탈바꿈한다. '쇠'로서의 역할을 얻게 된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당당히 걸어간다.

저자 프로필 | 이호준



학 력 | 수학과 19학번 | PL 제4기

이메일 | hojoon1101@gmail.com

약 력 | 2019 -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재학 (전공 학점 4.44/4.5)

2022 - 수학과 수학 학술 동아리 MIMIC 前 부회장
- 최적화 이론 URP 참여
-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 센터(AORC) 학부연구생
- President's List 4기

2023 - 매듭이론 연구 프로젝트 참여
- 조합행렬론 학부연구생
- 대통령 과학 장학생
- 수학과 동문회 장학생



반년간의 연구를 즈려밟으며

1. 들어가며

전 국민이 사랑하는 시인 김소월, 그의 대표작인 『진달래꽃』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김소월, 진달래꽃

화자는 스스로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부린 꽃을 밟으며 떠나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화자에게 측은함을 느낀다. 특히, ‘즈려밟고’라는 표현을 통해 내리눌러 밟는 그 무게감에서 화자의 마음을 가늠하게 하고, 또한 ‘짓밟고’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함부로 마구 밟지는 않았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을 짐작하게 한다. 즈려밟다만이 표현 가능한 그 미세한 차이 때문인가? 즈려밟다는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러나, 즈려밟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표준어인 ‘지르밟다’가 있지만 우린 그 사실도 잘 모른 채로 즈려밟다를 사용한다.

나의 연구도 마치 즈려밟다와 같았다. 겉으로 보았을 땐 상당히 그럴싸하게 보였고 정답인 줄 알았다.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년 동안 고군분투하였지만, 자기모순을 일으키는 연구를 애써 외면할 수가 없었다. 직면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날 밤, 형용할 수 없는 어느 거대한 존재가 나를 즈려밟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에세이는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된 2022년 추운 겨울 그날에 대한 이야기다.

2. 삼고초려(三顧草廬): 분야를 바꾸며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수학은 자유로운 사고와 단단한 논리의 학문이다. 누구나 수학적 주장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아무리 대가(大家)가 제시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한다면, 대가조차도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 이 매력에 빠져 수학과에 진학하였고 수학자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고등학교 수학에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등 여러 과목이 있는 것처럼 수학에도 많은 분야가 있다. 아무 리 수학을 좋아한들 어찌 모든 분야를 좋아하겠는가? 처음에 나는 언어로서의 수학을 좋아하여 ‘수리논리학’에 빠졌다. ‘불완전성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인 쿠르트 괴델(Kurt Gödel)과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을 좋아하여 가입하는 웹 사이트마다 닉네임을 괴튜 데링(GöTudering)으로 설정해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수리논리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다.

현재 나는 ‘조합론’이라는 분야를 하고 있다. 조합론과 만나기까지는 수리논리학을 포기하고 2년이 지나고 나 서였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2022년 1학기, 그때 수강한 「조합 및 그래프 이론」 수업은 인생을 바꾸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수업 출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 몸은 온라인을 부르짖었지만 복학에 들뜬 마음은 오프라인으로 나를 이끌었다. 부푼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갔지만 학생 은 나를 포함해 두 명뿐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네 번째 수업부터, 강의실엔 나와 교수님만이 있었다. 나에겐 기 회였다. 평소에 학생들 눈치가 보여 말하지 못한 내 생각과 질문들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었고, 교수님도 나의 직관과 이해 정도를 파악하며 맞춤형 수업을 해주셨다.

그러다 보니, 내가 수학을 왜 좋아하였는지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고찰하 고, 내 주장이 옳음을 보이는 것.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또한 필연임을 직감했다. 나는 이 분야를 또는 이 분야와 연관된 무언가를 결국엔 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머리의 열기가 다 가시기도 전에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말씀드렸다. “교수님 밑에서 조합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애정 어린 회의감과, 젊은 학자의 열정에 대한 부드러운 인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음... 정 그렇다면 Richard Stanley 선생님의 『Enumerative Combinatorics』란 책을 공부해 보렴.” 한 치의 망설 임 없이 난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고군분투 끝에 겨우 책을 빌려 공부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고, 만점은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도 최고점을 받게 되었다. 중간고사가 끝 난 바로 다음 수업, 교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나에게 말을 건네셨다. “호준, 너의 답지를 봤어. 잘 썼던데? 하나 는 실수인 것 같은데 뭐 아무렴 어때.” 교수님의 칭찬에 난 용기를 얻어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교수 님과의 수학적 교류가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당황하시더니 잠시 고민 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널 제자로 받을 수 없어. 다른 젊은 교수님께 부탁하는 것 이 좋을 것 같구나.” 넘어서 수 없는 현실에 체념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은 계속되었다. 수업의 풍경은 평소와 다른 것이 없었지만, 누군가의 지도(指導) 없이 드넓은 조합론이란 광야에서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이 내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 날이 되었다. 애정을 둔 수업이 끝난다는 아쉬움과 오프라인 수강생이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나를 위해 수업을 하신 교수님에 대한 감사함 등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졌다. 교수님 밑에서 수학을 하고 싶다는 어필을 그 날 이후로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에 단념하였고, 이번 수업이 어찌면 교수님과 수학을 얘기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마치고 싶지 않았다.



무심하게도 시간은 여전히 흘렀고, 수업이 끝나게 되었다. 아쉬움을 털며 그동안의 수업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려는 그 순간에 교수님의 말씀이 들렸다. “잠시, 내 오피스로 따라오게.” 놀라움과 설렘, 떨림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교수님 뒤를 따라갔다. 오피스에 들어가 어색하게 앉으니 교수님께서 운을 떼셨다. “나와 같이 수학해 볼래? 내가 너 석사는 못 시켜주지만, 졸업할 때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어.”

그런 날이 있다. 평소에 나를 골치 아프게 했던 고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던 문제들이, 뜻밖에 찾아온 ‘어떤 우연’(즉, 행운)에 의해 너무나도 말끔히 해결되는 날 말이다. 나에게 그날은 바로 그때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교수님 밑에서 조합론을 연구하게 되었다.

3. 반년간의 연구를 즈려뺏으며

나의 연구 분야는 조합론이다. 조합론을 정의하는 여러 멋진 말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보통 이렇게 대답한다. “유한한 대상, 그리고 그런 대상들 사이의 유한한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는 사람들의 멍한 표정을 보며 비유적으로 첨언한다.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다.” 그러면 이해는 되지 않지만 대충 관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왕 사람으로 비유한 김에 나의 연구를 설명하자면, 나는 사람들의 상하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다. 뭐, 족보라 생각해도 된다. 흔히 빠른년 생들을 족보 브레이커라고 한다. 빠른년생 친구와 후배가 친구를 맺어 상하관계가 깨진 상황, 내가 연구하는 상하관계에선 족보 브레이커는 없다.

나의 첫 연구는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집단 내의 사람들이 두 그룹 이상으로 완전히 쪼개진(즉, 그룹 간에 어떠한 상하 관계도 없는) 집단의 형태는 얼마나 많을까?” 질문 자체가 난해해 보이지만, 이는 수학적 용어를 일상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색함이며, 사실 수학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질문이다. 나는 충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였다.

나의 전략은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집단에 한 명씩 사람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이 전략은 하나의 큰 사실을 기저에 두고 있었는데, 이는 “한 명을 추가한다고 해서 하나의 그룹이 두 그룹으로 쪼개지지 않는다.”이다. 물론 두 명을 한 번에 추가하면 그 두 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기존 그룹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나, 한 명을 추가한다고 해서 한 그룹이 두 개로 쪼개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이 사실을 가정한 채로 나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다. 아주 특수한 경우부터 접근하여 점점 조건을 완화시켜 내 결과를 일반화해갔다. 매주 성과를 만들어가 연구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내 연구는 그렇게 반년 동안 순탄히 진행되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 남았을 때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연구를 진행하였고, 겨울의 한기를 온전히 막지 못하는 방에서 시린 발을 비벼가며 가능성 있는 집단 형태를 검증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한 가지 케이스가 눈에 밟혔다. 분명 조건에 만족하는 집단인데 한 명을 제외하면 하나의 그룹이 될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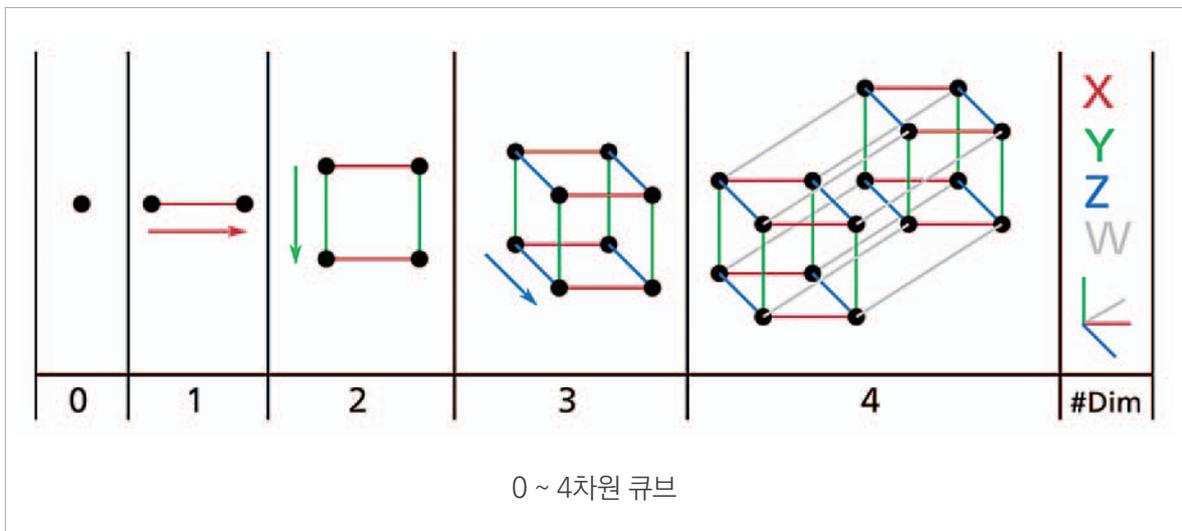
즉, 하나의 그룹에서 한 명이 추가되어 두 집단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케이스를 검증하고 검증하였다. 검증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나의 손은 떨려오기 시작했고, 어쩌면 나의 가정이 틀릴 수 있겠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아무리 대가(大家)가 제시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한다면, 대가조차도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 이 말은 내 스스로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다. 나는 나의 틀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직면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날 밤, 형용할 수 없는 어느 거대한 존재가 나를 두려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의 첫 연구는 실패가 되어 바닥에 부러졌다.

4. 두려뵈은 땅에 물을 주며

나의 실패를 들으신 교수님께서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시며 다른 주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실패의 절망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내가 쏟은 애정에 더해 연구한 기간의 이자까지 모두 반영되어 좌절로 돌아왔다. 이후 보름간은 여타할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이제 실패의 아픔이 무뎠고,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해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때도 어김없이 연구실 미팅을 하고 있었다. 박사 과정생 한 분이 흥미로운 결과를 찾아서 가져오셨다. 어떤 상하관계이든지, 그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차원 큐브 안에서 그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차원 큐브라 함은 다음과 같다.

0차원 큐브는 점이다. 점 두 개를 이으면 1차원 큐브인 선분이 된다. 두 선분의 각 끝점을 대응시켜 이으면 2차원 큐브인 정사각형이 된다. 두 정사각형을 이으면 3차원 큐브인 정육면체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차원 큐브를 만들 수 있다. 이 고차원 큐브 안에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형태의 상하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박사 과정 학우는 이 사실을 소개하며 한 가지 첨언을 하였다. “어떤 관계든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순간 나에게 뮤즈가 다녀갔다. 한 가지 방법이 강하게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10분간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검증하였다. 이내 확신을 가지고 모두에게 말했다. “위치를 특정할 방법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나의 첫 논문 주제가 생긴 순간이었다.

5. 마치며

누구나 실패는 아프다. 아무리 그 아픔을 피하려 해도 실패는 언젠가 찾아온다. 한편으로는 실패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실패를 경험해 보았고 각자만의 아픔이 있기에 “내 슬픔이 더 특별하다 아니다.” “더 값지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로부터 얻은 것을 감히 적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내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난 내일도 실패할 것이다.”

실패를 당연시하면, 실패에 대한 상처가 덜하다. 물론 아쉬움은 남겠지만, 원래부터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기저에 깔린 상태에서 실패로 얻을 수 있는 노하우만을 뽑아간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일도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의 실패로 내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마저 잃게 되면 안 된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묵묵히 도전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오늘 실패했으니 내일은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을 버렸다. 그러니, 나는 묵묵히 매일 실패할 수 있었다. 꾸준히 실패하다 보면 어느 날 행운이 찾아온다. 그것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시기는 다른 것이니까. 나는 오늘도 묵묵히 나의 실패들을 바닥에 부리며 이를 사분히 즈려밟고 있다. 그럼 어느 순간 내 실패들이 수십 송이의 진달래꽃이 되어있지 않을까.



저자 프로필 | 차서연



학 력 유학.동양학과 19학번 | PL 제3기

이메일 chacha18322@gmail.com

약 력 2019 - 『어쩌면 나의 이야기』 에세이 출판

2020 - SK SUNNY 노인-청년 문답집 제작 및 편집
-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서포터즈

2021 - 협동조합 푸르당 창업
- Mondragon Team Academy 수료
- 제13회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홍보 콘텐츠 부문
교육부장관상 및 최우수상 수상
- 성균관대학교 X JSC 종로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우수 활동상 수상
- SKKU President's List 수상
- 초등학교 교육 봉사 및 멘토링 70시간

2022
-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 IT 스타트업 브랜드마케팅 인턴

2023 - 고등학교 도덕윤리 교생
- 전기차 배터리 제조 대기업 신사업 리서치 인턴



Dear _____,

1. 어떤 선택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논문만을 남겨둔 19학번 PL 3기 차서연이에요. 글로 만나게 되어 왠지 모르게 더욱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원전공으로 유학.동양학을, 복수전공으로 자기설계융합전공의 컬처앤비즈니스를, 교직으로 도덕·윤리를 공부한 학생이에요. 세 개나 전공했다니 이 사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나요..?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절대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원해서 한 선택이니까요! 저는 제가 선택한 3개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해요. 여기서 핵심은 3개의 전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가고 싶기에 이런 선택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떠한 가치를 깨달았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의 생각을 담백 담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보지는 말아 주세요. 음악 듣듯 가볍게 그리고 편히 들어드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2. 첫 번째 선택

3개의 전공을 선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했으니, 원전공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전공 예약생으로 고3 때 전공을 정했는데 그때는 이 학과가 어떤 걸 배우는지 명확하게는 몰랐어요. 어렵듯이 동양철학 공부 정도로 알고 이쪽에 흥미가 있었기에 지원했어요. 성적에 맞춰서 간 학과가 아니라 제가 골라서 간 학과였고, 입학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저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솔직히 이 전공, 동양철학을 공부한 것에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살면서 제가 어디서 철학을 그것도 동양의 철학을 이 깊이로 배울 수 있겠어요..! 철학과 가면 뭐 먹고 사냐고 다들 걱정 아닌 걱정을 하셨지만, 네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20대 초반에 깊이 있는 철학을 공부하며 지식과 지혜를 조금이나마 빨리 그리고 더 얻을 수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양철학이라 하면 그냥 철학보다도 더 딱딱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데 감히 제가 전공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는 학문'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며 얻게 된 능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짜 원인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적인 접근으로 진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끊임없이 '왜?'를 던져야 하는 학문이잖아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왜?'를 붙여 고민해보면, 끔뎀 베일에 쌓인 진짜 문제가 점점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걸 사색의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는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리 막막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명확히 뚫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씩씩하게 걸어 나가는 힘이 생기게 돼요 점점.



돌이켜보면 저는 5년 동안 이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조금은 자랑 같이 들릴 수 있지만 많은 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생각한 바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라고요. 그다음에 오는 말로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확실히 깊이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이 전공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인생의 큰 행운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두 번째 선택

다음으로 2학년 2학기 말에 결정한 복수전공과 교직 이수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해요. 저는 복수전공도 정해진 학과가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직접 선택해 저만의 전공을 만드는 자기설계융합전공 트랙을 신청했어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데다 그걸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배우고 싶지 않은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영에서 회계는 좀 알아둬야 하는구나 싶긴 했습니다.) 교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교육자의 꿈도 있었기에 훗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싫어 교직 이수도 결심했어요.

정말 하고 싶어서, 오로지 제 의지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복수전공 한대. 경영은 무조건 해야 해’라는 말에 휘둘러서 한 것도 아니고, ‘강사를 했고 (4년 동안 방학마다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아이들도 잘 보고 잘 가르치니 교사도 잘 맞겠다’라는 비약적인 생각에 속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본질적으로 저는, 각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복수전공을 통해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마 기획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는 걸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려 했고, 실제 수업을 들어보니 역시나. GLS를 몇 날 며칠 뒤져가며 수업계획서를 모조리 꼼꼼히 읽고 고뇌하며 고른 수업의 의미가 충분히 있더군요.

더군다나 제 선택으로 고른 수업들이기에 더 재미있고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직접 짠 수업들로 전공을 공부해보니, 저는 원래 여기에 흥미를 느꼈던 사람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프로젝트들을 통해 내재적인 능력을 깨우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전공을 통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뭘 잘하는지 알고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쌓인 내공으로 저는 기획을 중점으로 하는 업(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직의 경우,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버팀목의 역할을 제가 해줄 수 있길 바라는 공부하게 되었어요. 저는 19살이라는 조금은 이른 나이부터 강사 생활을 하며, 제가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의 반 타의 반) 당장은 ‘교육자의 길을 꼭 걸어갈 거야’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교육은 하고 싶었기에 교직이수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복수전공과 교직이수를 같이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교직에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직접 학교 현장에 교생으로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저와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정말 여러 면에서 너무 좋아서 교사의 길과 다른 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중한 생각을 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교사는 아니지만 교육자가 되자'는 것이었어요. 학교 교사는 교직을 이수하고 임용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만 교육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학교 밖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자고 다짐했어요. 지금도 꾸준히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일환인 것 같네요.

4. 세 번째 선택

이렇게 제가 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공을 '선택'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을) 3개나 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살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3개 중 어떤 걸 선택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꼭 짚어 말하긴 어려울뿐더러 저는 동양철학에서 배운 인문학적 사고방식과, 복수전공을 통해 키웠던 문제 해결력과 팀을 이끄는 능력, 교직을 하며 경험한 누군가의 세계에 스며들어 가는 마음 모두 다 제 커리어에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양철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기획의 깊이에 지금과 차이가 있었을 거고,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을 잘하고 이런 일에 강력한 성취를 느끼는 것을 잘 몰랐을 테고, 강사 생활과 교생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것의 뿌듯함을 벅차게 느껴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죠. 하나의 길을 선택했다기보다 저는 제가 원해서 한 길들의 좋은 점을 융합하는 방식을 택한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5. 나의 선택

저는 하고픈 것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정해놓은 꿈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그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보고 다양한 활동도 도전해 봤어요. 그랬더니 막연했던 것들이 점점 선이 되는 게 보이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그 선이 그림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다들 하고 싶은 꿈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나는 아직 무엇을 업으로 삼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힘든 적이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활동도 체험해 보고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생각을 글로 적어보며 계속해서 명확한 근거를 정립해 나가고 그렇게 선명하게 만들면서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흥미로웠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마법 같은 순간이지만 눈부시게 마법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은 더 자주 찾아오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칠게요.

저자 프로필 | 고남욱



학 력 | 경영학과 19학번 | PL 제4기

이메일 | nathan21@g.skku.edu

- 약 력**
- 2019 - 청년 진로 탐색 서비스 씨클21 대표(동국대학교 및 전국 12개 대학교 진로 탐색 콘텐츠 진행)
- (캠퍼스타운의 셋별)@“야구 유망주 대신 취업 유망주 키워요” - 뉴스토마토 '19.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공모전 빅콘테스트 장려상 외 6개 대회 수상
 - 2020 - 창업300 교육부 인증 및 7개 대회 수상
-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단 입주 기업 선정
 - 2021 - 국가보훈처와 심산 김창숙 선생 추모 행사 연계 보훈 가족 장학금 지급 캠페인 기획
- 한국장학재단 인문 100년 장학금 선정 (최대 4학기)
- 서울시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IR 데모데이 서울시장상 외 16개 대회 수상
- Si기반 음원 개선 어시스턴트 보이스 매치 창업
 - 2022 - 실전창업학회 Match 설립 및 명품 학회 선정/ 교내 저소득층 학생 TO 별도 지원
- 성균관대학교 불교학생회 성불회 회장/ 장학금 사각지대 학생 지원 사업 추진
- KDB 스타트업 스타트업 2022 전국 대학생 실전 창업경진대회 대상 외 23개 대회 수상
 - 2023 - 창업엑스포 대상, 사회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상 외 4개 대회 수상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1(창업지원형) 선정 (최대 4학기)
- “콘텐츠+ICT 스타트업의 성장 파트너” [컴퍼니] - 한국경제 '23.11
- 미국 실리콘벨리 VC 7개사, 국내 10개사 중심으로 투자 유치 진행 중 ('23. 11~)



두 번째 스무 살, 마흔에 다시 학생으로

1. 늦었다고 판단된다면 이 글을 보세요.

“선생님. 저희가 이런 술 게임을 하는데요.”, 선생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스무 살 어린 동기, 열아홉 살 어린 선배가 새터에서 내게 처음 이렇게 불렀다. 식사할 때 내가 수저를 들지 않으면, 먼저 밥을 먹지 않았고 (내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앉았으며 내 이부자리는 따로 아이들이 챙겨줬던 기억이 난다.

“학부모님은 여기 줄 서시면 안 되는데요?” 입학식에 참여하기 위해 수성관 대기열에 있을 무렵, 학생회 학생에게 합격증을 보여주었던 그 시절. 경영관 지하극장에서 OT가 시작되었을 때, 업무 미팅으로 늦을 것 같아서 “회사에서 미팅하고 강남에서 넘어가는 길입니다.”라는 카톡 하나에 학생회 많은 친구가 나와 도열해서 인사를 했던 추억. 경영대 교직원 선생님도 내가 당연히 한 학생의 가족일 것으로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고 안내했던 그 시기. 그래서 경영 7반 반장 (황) 상윤이, 부반장 (이)용희는 내가 OT 끝나고 뒤풀이를 가면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 걱정했다는 기억들. 개강하며 인문대에 들어서자, 백발의 교수님이 “신임 교수이신가 보네.”라며 문을 열어주시고 “환영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죄송하기도 했던 바로 그때가 벌써 5년 전이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입학식과 새터를 갔고, 아이들과 현역 때 해보지 않았던 FM을 하면서 심리적인 거리, 장벽을 낮췄던 그 시기. 그때의 도전이 너무 감사하다.

참고로 몇몇 친구들은 지금 나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대표님, 남육님, 형님. 멘토님 그리고 그분. 나이가 있어서인지 학교에서 내게 주어진 호칭은 이렇게 나뉜다. 사실 학사로 나이 마흔에 다시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집에서나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주변 친구들, 교수님들께는 이 이야기를 아주 늦게 했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취업 및 창업 강의로 하는 상황에서의 나의 결심이었다. 처음에는 조기 졸업을 목표로 입학했지만 3개의 전공, 한 번도 휴학하지 않은 10학기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다녔나 싶다. 경영대 계단을 올라가면 ‘그 분’으로 유명해져서 모든 학생에게 1년 동안 인사를 받았던 그 시기가 빛처럼 흘러갔다.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업무차 방문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게임 대국을 운이 좋게도 라이브로 봤던 것이 내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한다. 그 장면을 보고 코딩을 어떻게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입학으로 행동에 옮겼다. 입학 후 바로 소프트웨어학과 복수전공을 선택했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다. 다행히도 수많은 시행착오, 논문 분석 학습을 거치면서 AI 기반 음원을 개선해 주는 어시스턴트, 보이스 매치의 대표를 맡으며 12명의 팀원과 매일 실패, 성공을 마주하며 이제는 실리콘밸리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2. 실패, 인생의 항체를 위한 과정

나 역시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가우뚱한다. 입학 후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는 이야기였다. 사회생활 했던 아저씨가 실패 과정 없이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지적.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부는 맞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입학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기존 생각 중 필요 없는 것들부터 많이 내려놓았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생활에서는 과감하게 내게 필요한 교과, 비교과를 경험 후 선별하며 체득하며, 나 스스로의 점검부터 시작했다. 과목은 필수지만, 소화가 힘들 것 같은 악명 높은 교수님 수업. 그런 과목은 국내 학점교류로 타학교에서 학생들이 유익했다고 이야기하는 수업으로 대체하는 작업도 함께했다.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선입견, 학습 방식, 업무수행 방식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 지금 세대와 부대낌을 통해 성장할 방법을 고뇌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은 능력에서 저평가받는 세대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무엇부터 버리고,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심한 편이다. 경쟁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성장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내려놓음, 혹은 버림이 나중에 후회로 남을까 봐 주저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다. 여러 활동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험하거나 수집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진짜 성공을 위한 실패도 경험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만큼은 경험해보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싶다.

3. 교내 공지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교내 과제, 팀 프로젝트를 무조건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 사업단 비교과 사업과 모두 연결해 보기를 바란다. 학생들에게 창업이라고 하면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을 꼭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업 기술을 배워서 내가 나를 성찰 및 성장시키는 방법을 익히라는 의미이다. 상경계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학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창업지원단과 연결된 분들이 실무에서는 더 전문적이다. 여러 개 아이템 실험보다 1개의 아이템을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 실현해 보는 것부터 추천한다. 대부분 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유통되는 진짜 아이디어는 고객의 불편함. 진짜 수요가 반영된 아이템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1개만 명확하게 검증, 실험하면 사회에서 유통되는 다른 아이템도 시스템이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수험 시절 단권화 작업과 원리가 같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내 글쓰기, 말하기 수업의 연결을 고민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친구 잘 사귀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4년 동안 60개 정도 수선했지만, “원래 그런 능력은 타고났거나 사회에서 배운 것 아니냐?”고 주변에서 묻는다.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 어린 동기들하고 가진 재능을 서로 교환, 피어 코칭하며 수상한 결과다. 입학 후 개인적으로 기초 파이썬 과목을 삼수강도 했다. 그때부터 소프트웨어학과 지훈이, 멋사의 민규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던 기억이 난다. 받을 수만 없어서 나는 내가 잘하는 프로젝트 기획, 협업 방법을 구체화해서 알려주었는데, 이렇게 도와가며 서로의 철학을 공유했다. 그러자 좋은 친구들 그룹도 확장되었다. 개인적으로 학교생활 실패가 친구의 잘못 사قم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적잖이 봤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변에 이야기한다. 교수학습센터 성균튜터링, 성균공부방 프로그램 활용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특히 튜터링은 교과목 중 학점이 잘 나온 과목에 대해 다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수업을 매 학기 진행. 명륜, 율전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의 폭을 넓혔다. 덕분에 연락하는 친구들이 어리지만 삶의 철학도 배울 수 있는 친구들도 많아진 덕분에, 학교 생활 사이사이 지금의 삶을 돌아볼 때도 있었다.

참고로 경영대 팀 앙트레프레너십 수업, SeTA를 듣는 것도 ‘좋은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된다. 3학점 전공, 비교과로 들을 수도 있다. 러닝 바이 두잉(learning by doing)으로 나 스스로 능동적 학습에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때를 기점으로 학점 상승. 인문 100년 장학금 등 전액 장학금 지원도 받으며 보다 실험적인 학교생활도 할 수 있었다. 또한, 경영학 전공이 아니라면 앙트레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선택도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싶다. 수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사회 시스템을 검증하며 졸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과정을 통해 모르는 교수님들께 메일 드리고, 찾아뵙고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학습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바란다. 내가 능동적이라면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분들,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은 정말 많다.

4. 나와 세상에 대한 포용, 성찰, 나눔이 중요

여담으로 공모전에 목메는 학생들이 있어 이야기하자면, 수상 자체에만 집중하면 진짜 성장은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성취의 측면에서 실제 해당 프로젝트가 사회에 진심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지속할 수 있게 적용되는 프로젝트를 나 스스로 수없이 실패하며 수정할 수 있다면 공모전은 나를 성장시키는 학습의 도구일 것이다. 우리 학교 최다 수상 명품학회, 실전 성장학회 Match를 만들면서 그간의 내 경험을 공유한 것은 사실 그 때문이었다. 불교학생회 성불회 회장을 맡으며 동아리 자체 장학금 지급 시스템, 사회나눔 교육봉사 시스템도 선후배님들과 만든 것 역시 이 생각을 사회에 지속가능하게 적용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실패 나눔의 공유, 더불어 가는 삶에 대한 자각,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한 가치의 자각을 그렇게 나는 학습했다. 평균 4점대 성적. 경영대에서 4.5학점 자에게만 수여하는 Dean’s List를 2회 거머쥐었지만, 학창 시절 초반에는 성적표를 보며 망연자실했었다. 교수님들과 어린 동기들에게 매일 질문하며 도서관, 24시간 카페에서 매일 밤을 새웠다. 이 행위 덕분에 현재 공부 방향은 암기가 아니라 사회 적용 가능,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는 부분을 더 많이 느끼며 배울 수 있었다.

고객 수요의 본질,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와 연결된 방법론에 매일 몰두하며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많은 실패를 받아준 우리 학교 시스템으로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차례라는 말을 이제야 건네고 싶다. 누군가의 경쟁에서 보이는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은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가장 나 스스로 행복하며 구체적인 미래를 고민. 성장을 하는 것 같다. 나만의 인생 트랙을 걷고 뛰며, 때로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학생 성공’은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재정의하며 이타심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이 글을 보는 우리 성균인들, 선후배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킹코 킹고 에스카라 훌라 훌라 SKK!” 자책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저자 프로필 | 허정원



- 학 력** | 컬처앤티크놀로지융합전공 19학번 | PL 제3기 | 'Fujipacific Music Korea' Creative A&R 재직 중
- 이메일** | hiw990@naver.com
- 약 력**
- 2019 - 학생성공-창의장학생
 - 2020 - 극지연구소 대학생 기자단 '폴라이터' - 청소년특별회의 선별직 온라인소통팀
- 틱톡 X 이십세들 앰배서더 '이십생활' - 상소공모전 장원 수상
- 여행/관광 창업팀 '돌레길' 창업, 사업자 등록 및 2020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발
- 도전X라이브 공모전 영상부문 장려상 - 성균크리에이티브챌린지 장려상
- 지역사회발전 '참(Charm)' 대학 연합 프로젝트 대상
- KDI(한국개발연구원) 막상막하 B급 홍보대회 캠퍼스폭발상
 - 2021 - 틴더 공식 앰배서더 '틴더플레이메이커'
- 글로벌융합학부 제3대 부학생회장, 성균관대학교 제53대 중앙운영위원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라이프시맨틱스' 콘텐츠 제작/마케팅 인턴
-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새내기를 위한 영상 공모전' 장려상
- SKKU VISION 2030 포스터 공모전 장려상
- 실전마케팅학회 SCAN X 포토이즘 산학협력 최우수상
-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맞춤형 모델 네이밍 공모전' 최우수상
 - 2022 - 실전마케팅학회 SCAN 대외협력부장 - 미국 UCLA 도전학기 교환학생 글로벌리더장학생
- 실전마케팅학회 SCAN - 관다 산학협력 장려상, SK브로드밴드&신협 산학협력 입상
- 학부 PBL 공모전 장려상 - 졸업작품 데뷔곡 [1인칭 주인공 시점] 발매
 - 2023 - 성균 최우등 졸업, 하계 졸업생 대표 연설
-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 A&R 제작 1팀 인턴
- 소유 미니2집 [Summer Recipe] 제작



안 해본 거 빼고 다 해본 프로 열정러가 별안간 음악에 미치기까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President's List 3기 컬처엔테크놀로지융합전공/경영학과 19학번 허정원입니다. 저는 현재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라는 글로벌 음악 퍼블리셔의 Creative A&R로 재직 중이며, 커버곡 저작권 관리, 데모곡 정리 및 피칭, 송캠프&세션 진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4.5년을 함께한 정든 성균관대학교를 떠나보낸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재학 중인 선후배, 동기 여러분을 위해 PPlus book을 제작할 시기를 맞이하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PL로서 매년 작성했던 글이지만, 대학생이 아닌 사회초년생으로 처음으로 드리는 원고인 만큼 이번에는 저처럼 남들이 흔히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용기 있는 분들에게 따스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펜을 들어보았습니다.

2. 음악 비전공생이 음악을 업으로 삼으려 하니

제가 처음으로 '음악'에 설렘을 느꼈을 때를 찾으려면, 처음으로 작곡을 했던 중학교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컴퓨터 MIDI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혼자 음성녹음으로 피아노 연주를 기록해 뒀고 언젠가는 제 음악을 유형적인 형태로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일반적인 입시를 치르게 되며 음악의 꿈은 잠시 미뤄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학 입시가 끝나고 종종 실용음악학원에 다니는 등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찰떡같이 맞는 전공을 만나게 된 터닝포인트가 다시금 그 의지를 불태워주었습니다. 콘텐츠의 A to Z를 배우는 컬처엔테크놀로지융합전공에 진입 후, 여러 콘텐츠의 장르 중 단연 제 이목을 이끈 것은 '음악' 관련 전공 수업이었고, MIDI 작곡을 배우는 '음악콘텐츠기획제작실습', 오디오 편집 및 시각화를 다루는 '문화예술과테크로지입문' 등의 강의를 수강하며 자연스럽게 저의 옛꿈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점교류를 통해 한국음악예술종합학교의 음악원 수업들을 들으며 진짜 현직자들을 만나며 그 진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른 과제를 할 때는 그렇게 지나가지 않던 시간이, 음악 공부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그저 재밌어서 새우던 밤이 하루, 이틀 되어갈 무렵, 저는 제가 반드시 음악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임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음악과 관련된 진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제가 가장 처음,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작곡가'란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무작정 실용음악학원에 찾아가 화성학 이론, 작편곡 방법 등을 배웠고, 하루 10시간 이상씩 제 방보다 좁은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 및 작곡 공부를 하며 음악 대학원을 준비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전과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재밌었으나, 점차 제 성향을 배신하는 일이란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프로젝트성으로 단기적이고 잦은 성취를 즐기는 제 특성상, 온종일 좁은 공간에 갇혀 오롯한 고독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은 점점 스스로의 숨통을 죄이는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 발견한 또 다른 직업이 바로 A&R이었습니다. 당시 마지막 학기 특성상 다행히 학교 학생인재개발팀, 서울시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 다양한 직무탐색의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음악을 창작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학생할 내내 참신한 아이디어로 여러 공모전을 수상했고, 나름의 뛰어난 사회성으로 여러 단체생활을 향유했던 제게 더없이 맞는 직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첫 술, 아니 여러 술에도 배부르기 힘들었던

하지만 이제서야 진로탐색이 끝났을 뿐 본격적으로 진로를 그리기 위한 길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음악대학이 없는 우리 학교 특성상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기르기가 매우 어려웠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라 주변에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도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대학시절 내내 일궈온 여러 활동과 수상실적 덕분에 서류는 어떻게든 합격했지만, 면접이나 적성시험만 가면 전공생들에 비해 부족한 지식 및 전문성과 경력자에 비해 부족한 실전경험 등이 금방 들켜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n회의 무수한 탈락을 거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동안 저는 단순히 그간 했던 활동들의 양을 앞세워 나열하는 데에만 급급했지, 정작 어떤 종류의 활동인지, 이 이력들이 희망 직무에 적합한지는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 관련 직무를 원한다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더라도 음악과 연관된 활동 위주로 작성하는 게 저에게 백배 천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수많은 불합격을 맛보고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절대로 자의적 판단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적합한 희망 회사의 희망 직무 현직자를 만나기는 힘들더라도, 유사한 업종이나 직무의 현직자라도 만나서 업계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맛봐야 했습니다. 이에, 학교나 시청/구청 등의 멘토링, 혹은 지인 등 경로를 가리지 않고 알게 된 현직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을 만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무역량과 업계 진입 후 곧바로 맞닥뜨릴 현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4.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후엔 이력서의 활동을 대외활동 버스킹, 음악 관련 전공수업을 통한 결과물, 졸업작품으로 발매한 자작곡 등 음악 위주로 개편했고, 많이는 없지만 어렵게 업계 자격증을 알아내서 국비 지원으로 음향학원을 다니며 음향편집 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A&R 직무 스테디를 통해 매주 다양한 음악 장르를 분석하고 산업뉴스를 읽으며, 국내외 앨범들을 리뷰하고 아티스트 기획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그간 맛봤던 수많은 불합격은, 전부 이렇게 나를 더 준비시켜서 업계에 대해 공부하고 원하는 직무를 가질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생각이 도리어 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은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환이었습니다. 이후엔 8개월이라는 도래에 비해 다소 긴 취업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노력이 재직 중 빛을 발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의미에서 졸업작품으로 작곡한 데뷔곡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이어, 입사 후 취준 기간동안 하루를 Reset하고 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담은 싱글 2집 [Reset]을 발매하는 등 같은 20대의 공감을 사는 자작곡을 꾸준히 발매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중입니다.



BPM 엔터 A&R 인턴 으로서 제작한 소유 미니 2집 [Summer Recipe]



2021 싱글 1집 [1인칭 주인공 시점]



2023 싱글 2집 [Reset]

5. 갈무리하며

옛말에 사람이 정말 바뀌려면, 나를 이루는 환경, 인간관계, 시간을 쓰는 방식 중 하나를 바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니깐’ 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게 다른 길을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것이 아까워서라도 놓기가 어려웠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오히려 그러한 미련이 제 취업을 늦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처음에야 조금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려는 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뒤, 그냥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주변인들이 많이 가지 않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면, 명심하세요. 대학 내에서 겪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용기를 내서 그간의 성취를 내려놓고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 봅시다. 좁은 시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에 맞는 색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막연한 두려움이야 말로 나도 모르는 난이도를 높이는 법이니 많은 정보 습득을 통해 진로로 가는 길이 막막하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지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길을 걷는 최초의 사람이 기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프로필 | 강훈



학 력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18학번 | PL 제3기 | SK On 배터리 재직 중

이메일 hunyhoony@naver.com

- 약 력**
- 학점은행제 가정학을 시작으로 편입과정을 거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익혀 스스로 배움을 찾아 나선 자기주도적 학습자
 - 편입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우들과 선배들을 연결하고 멘토로 활동하며 편입생들이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행사
 - 전공 학습과 융합 학습을 결합한 학습 훈련으로 2년간 우수한 성적 유지 편입생 뿐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롤 모델로 적합
 - 우수 학부 연구생, 대학원 진학, 엔지니어로서의 진출을 꿈꾸며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 現 SK On 엔지니어 근무 중



수능만 한 해설지?

1. ‘들어가며’

늦깎이 대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직장인 3년 차가 되었다. 여느 때와 같은 일상에 대학 생활의 기억도 희미해질 무렵,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PLus Book 참여 제안이 왔다. 이전에 쓴 나의 ‘학생성공스토리’에서는 조금은 더 희망찬 열정 넘치는 단맛을 메시지로 전달했다면, 이번엔 연말정산, 성과급 등 현실적인 사회의 때가 잔뜩 묻은 직장인 3년 차의 쓴맛을 메시지로 전달해 보려고 한다.

2.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하지만 생기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그랬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생기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그랬다. 취업하면 여자 친구 생긴다고 생기지 않았다. “엄마 미워!”

다소 장난스레 시작했지만, 직장인 3년 차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성인이 된 내가 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졸업 시기 막 학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에 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대학원 진학과 취업이라는 갈림길에서 말이다. 늦깎이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학우들과 달리 졸업할 때 나이가 많이 늦었다. 대학교 공부가 썩 나쁘지 않았기에 대학원 진학에도 흥미가 있었지만, 서둘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기도 하였다.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때마다 대부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지금 아니면 취업 못 해”, “그냥 취업해” 등등 그때마다 들었던 ‘대기업 취업 나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나를 결국 엔지니어로 취업하게 했다. 그렇다. 어릴 때와 똑같이 나는 ‘OOO가 그랬는데 대기업 취업하러서 취업했다.’

3. ‘5지선다형 문항 선택지 3번: 엔지니어’

‘모르면 3번이나 4번을 찍어,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우리는 흔히들, 5지선다형 문제에서 모르면 3번이나 4번을 많이 찍는다. 그게 ‘국룰’이니 말이다. 나에게도 엔지니어는 그런 ‘3번’이었다. 뒤늦은 나이에 졸업했고, 공대를 다녔기에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선택지는 ‘엔지니어’로 귀결되었고 그렇게 나는 취업하였다. 그리고, 3년 차 사회인으로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지금까지의 결론은 그 선택지가 나를 아리송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오답’이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생긴 여러 불량 원인을 파악하고 Data 등을 분석하며 개선점들을 도출해 나가는 이 과정이 재미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직무가) 나와는 다소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엔지니어는 조금은 더 정적인 자세로 Data 등을 분석하고 다루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조금은 더 동적인 사람이고, 분석보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나'와 '엔지니어'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괜찮은 복지', '준수한 연봉', '대기업', '엔지니어'라는 요소들이 나에게서 정답이 아닌 오답으로 다가왔다.

4. '수능만 한 해설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문제집, 특히 수능 문제집의 해설지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정답에 대한 근거는 물론이요, 오답에 대한 해설 또한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준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 생활을 조금만 지내더라도 대학 전공책들의 해설지는 아주 많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설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많으며, 있더라도 영문으로 설명은 물론이요, 생략이 많은 것은 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CHEGG님"을 찾아뵙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런 해설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전히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의 정답을 찾아 나가야 하며, 스스로 오답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답은 우리에게 '시간', '돈'이라는 RISK로 다가오며, 해석은 '좌절', '회의'로 다가온다.

사회인 3년 차로서 'OOO이 공대는 대기업 엔지니어 취업'이라는 오답을 경험하며 비로소 나만의 꿈을, 나만의 정답을 찾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것이 아주 많이 힘든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아직 배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오답을 경험하며, 사회에 나갔을 때 최소한의 RISK로 정답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저자 프로필 | 김영민



- 학 력** 전자전기공학부 16학번 | PL 제2기 | 삼성KPMG 디지털 본부 재직 중
- 이메일** youngmanykim@gmail.com
- 약 력**
- 2016 - 성균관대학교 스마트카 설계 경진대회 우수상
 - 2017 - 서울공항 항공기 전기 정비병 군복무 (2017.02~2019.02)
 - 2018 - 환경부 주관 2018 환경창업대전 장려상
 - 2019 - 경기지역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 IoT 연구 동아리(킹고 스마트싱스) 창단 멤버
 -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o.hoo) 활동
 - 2020 - Advantech 주관 IoT Developer Innoworks 장려상
 - SIS 실험실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하반기 창업경진대회 장려상
 - SKKU President's List 2기 선정
 - 2021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축구동아리 파이어볼스(Fireballs) 주장
 - 불법주정차 방지 기능의 공유주차 서비스 창업(정부지원사업 선정 및 최우수 예비기업 선정)
 - 2022 - IT회사 서비스 기획팀 인턴
 - 2023 - IT회사 사업 개발팀 사원
 - 2024 - 삼성KPMG 디지털 본부 컨설턴트



나는 어떤 실패를 해왔는가?

안녕하세요, SKKU President's List 2기 수상자 김영민입니다. 대학교 재학 당시에는 '불법주정차 방지 기능의 공유주차 서비스' 창업에 도전했었고, 졸업하고서는 IT회사의 사업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삼정KPMG에서 컨설턴트로서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 이력을 들으시면서 정신이 없으신가요? 정상입니다. 저 또한 제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쫓대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선 혼란스러워하는 제 옛 모습이 떠올라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우분들에게 참고사항 정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경험과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실패)

대학교에 입학하고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이렇게 자유롭고 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고, 그 사람은 '꿈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꿈이 무엇인가요?'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원했던 수준의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신입생 때는 찾지 못해 많이 아쉽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서 학교로 복학해서 듣는 수업에서 다행히도 제가 찾고 있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IoT 연구 동아리(킹고 스마트싱스)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모전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이는 제가 창업의 꿈을 구체화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창업의 꿈을 키우는 것이 성공적인 대학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생겨 학교 다니는 것이 즐거웠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의 기준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만약에 하고 싶었던 질문을 '물어보기 민망하고 오글거리는 질문' 따위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물어보지 않았다면 방향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창업 실패

앞서 이야기했던 IoT 연구 동아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창업경진대회를 포함한 수많은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단발적인 프로젝트성 기획 및 개발에서 나아가 실제 세상의 문제를 발견 및 정의하고, 내 힘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 각종 축구장, 풋살장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관리되지 않고 주차금지 표시만 되어있는 빈 주차면, 그리고 내가 그나마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IoT 역량을 합치면 경쟁력 있는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아이템은 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에서 선정되고, '최우수'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디어 검증에 대한 방법과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설문조사로 나온 지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그리고 리서치를 통해 나온 각종 자료들 모두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결국 검증의 핵심은 '저 사람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 카드를 꺼내어 구매할 정도로 나의 아이템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명확한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템이 해당하진 않겠지만 많은 자본이 없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품이 다 만들어져 실제 작동하는 것 마냥 고객을 생각하면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totype이라는 개념인데, 아마 스타트업 방법론 관련 책을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감이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 창업에 도전했던 시기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아닌, 창업경진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닌, Pretotype을 세상에 먼저 선보이고 잠재 고객들의 니즈를 먼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3. 회사 적응 실패

창업에 실패하고서 일을 제대로 배우고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IT회사의 사업개발 부서로 입사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첫 회사 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늘 앞장서고 나서는 포지션에 익숙했기에 회사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시스템 중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규모가 클수록, 함께 작업하는 사람이 많으니 속도와 방향성을 Align 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지금도 철들지 못했지만, 그때는 더욱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환경에서는 근무하는 것이 의미 없을 것이라고 선부르게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더욱 성숙한 고민을 통해 신중한 행동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4. 전환 그리고 방향

창업 실패, 회사 시스템 적응 실패, 직무 FIT에 대한 고민 등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였던 적도 있습니다. 많이 다투었던 창업 멤버에게 다시 연락하여 과거 제 모습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고, 저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또는 걷고 있는)분에게 용기 내서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깊은 교류가 없었던 교수님에게 두서없이 고민을 담은 메일을 무작정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조언을 새겨들으면서 결국 맨 처음 질문을 다시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또다시 ‘꿈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 또는 집단’과 함께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답은 없고, 제가 결정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방향이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별다른 내용도 담지 않은 이 글을 몇 번이나 쓰고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끄럽고 아쉬움이 남는 제 모습을 어디까지 보여주어야 하며, 또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확신이 없기에 더욱 망설여집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적으며 한 가지 소망을 빌어보자면, 자신감이 부족한 학우분들에게는 이 글을 읽고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확신이 없어서 괴로우신 분들에게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분이라면 저보다 더 크고 멋진 꿈을 꾸시면서 저에게 희망차게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글을 다 쓰고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 역시나 큰 알맹이는 찾아볼 수 없는 글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SKKU President's List에 선정된 사람으로서 일종의 책임감을 가져보자면 적어도 제가 겪었던 방향, 경험, 감정 그리고 커리어를 포함한 그 어떤 것이라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어디선가 먼저 방향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걸로 연락해도 될까?’와 같은 고민이 스친다면 이 글의 [4. 전환 그리고 방향] 부분을 다시 읽으시면서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Student Success Center

Plus BOOK

인쇄일 2024년 3월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기획·편집 학생성공센터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국제관 1층
T. 02-740-1768

제작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디자인·인쇄 알앤비기획
(1636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울전로101번길 11 성대프라자 203호
T. 031-291-6180